

研究論文

燕行路上的 공간 탐색, 鳳凰山城
-安市城說과 관련하여-

이 승 수*

I. 문제제기	V. 봉황산성의 안시성설에 대한 반론
II. 요동반도에서의 안시성론	VI. 맺음말
III. 봉황산성의 고구려 도읍지설	<참고문헌>
IV. 봉황산성의 안시성설	<국문요약>

I. 문제제기

조선시대 연행사들은 압록강을 건너 九連城과 湯山城에서 이틀을 묵은 뒤 사흘째 되는 날 柵門에 도착했다. 柵門은 현재 봉성시 邊門鎭이 되어있다. 상징적인 국경인 책문에서는 통관 절차를 밟았다. 통관 절차를 끝내면 鳳凰城에 이르러 또 하루를 묵었다. 봉황성은 지금의 鳳城市인데, 명대에는 開州라고 했다. 책문과 봉황성 사이의 연행로 북쪽에 현재 중국의 동북 4대 명산의 하나로 꼽히는 鳳凰山(해발 836m)이 있다. 봉황산은 산세가 수려하여 그 자체로 주목의 대상이었다. 연행사들은 이 산을 북한산이나 월출산 등에 견주곤 하였으며, 관련 시문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그런데 봉황산이 연행사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이 산의 동쪽 자락에는 고구려의 옛 성이 남아있다. 이 성은 서쪽의 봉황산과 동쪽의

*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국문학 전공(woohabin@hanmail.net).

高麗山(529m)으로 둘러싸여 있다 두 산은 모두 산세가 가팔라서 그 자체로 천험의 요새가 된다. 안에는 개울이 흘러 물이 풍부하고 얼핏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산성의 형태라는 광주리형의 모습을 띠고 있다.¹⁾ 성벽의 둘레는 7,525m에 달하고, 남쪽과 북쪽에 성문터가 남아있으며, 안에는 城子里屯이라는 마을이 있다 지리상의 위치로 보나, 또는 성의 동북쪽을 흐르는 靉河를 옛날에는 烏骨河라고 했던 점, 그리고 당나라 때의 문헌인 『翰苑』, 『高麗記』의 “烏骨山在國西北…東西二嶺壁立千仞”이라는 기사 내용 등으로 보아 학자들은 이 성을 고구려 때의 烏骨城으로 추정한다.²⁾ 중국 당국은 1996년 이 성을 鳳凰山山城으로 명명하고 ‘전국중점문화보호단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³⁾ 오골성은 645년 高唐 전쟁 때 당나라에서 취하고자 하다가 포기한 성으로 『唐書』에 나와 있어 널리 알려진 고구려의 산성이다.

연행사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것은 바로 이 봉황산성이다. 특히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인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산성이 바로 安市城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 안시성설은 양만춘 장군의 승전 일화와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18세기 이후 사회의 통설이 되었다. 물론 역사지리학의 토대 위에서 이 안시성설을 부정하는 반론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봉황산성이 과연 옛 안시성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공간 자체는 뜨거운 쟁점의 대상이 되었다. 이 성은 천 몇 백 년을 거기 그 자리에 있어왔지만, 한양과 북경 간 육지 사행로가 개통될 때부터 이 산성이 주목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연행사들은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이 산성에 관심을 보인 것일까? 본고는 고려 말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시기, 연행사들이 보여준 봉황산성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더불어 그 역사적 배경과 원인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18세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안시성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근대에 들어서 안시성은 강성했던 고대사의 한 표상으로 성립되어 위기의 순간마다 손쉽게 호출되어 미래의 지표로 제시되곤 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안시성 인식은 다분히 감상적이고 낭만적이어서 논리적 기반이 허약하다. 고대사는 독립적인 실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현재의 인식과 맞대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

1) 산성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는 정약용/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역), 『총설』, 『民堡議·民堡輯說』(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9) 참조

2) 이 성의 규모와 구조 등에 대해서는 王綿厚, 『高句麗古城研究』(北京: 文物出版社, 2002), 72~73쪽 참조

3) 이 글에서는 성의 이름을 간결하게 하여 ‘봉황산성’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동안 여러 단계의 ‘인식과 구상’의 누적을 통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이다. 본고는 안시성의 형상이 형성·변모되는 과정을 검토하여 그 역사적 실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안시성의 위치를 비정하는 문제와는 다른, 복잡한 역사 환경 속에서 지적 인식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양상을 흥미롭게 보여줄 것이다. 이 논의가 안시성에 대한 유효한 정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요동반도에서의 안시성론

주지하듯이 645년 9월 요동 정벌에 나섰던 당나라의 군대는安市城을 함락하지 못하고 퇴각하였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지적했듯, 퇴각 당시의 정황을 묘사한 『당서』의 기록은 심각한 자기모순을 안고 있다. 안시성에서 당당하고 여유롭게 군사를 물리던 모습과, 遼澤을 지날 때의 비참한 광경 사이의 불일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⁴⁾ 이러한 모순과 틈에 대해 여러 해석이 가해졌고, 또 수많은 이야기가 발생하여 세상에 전승되었다.

우리 역사에서 史書와는 다른 차원에서 안시성 싸움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목은 이색(1328~1396)이다. 그는 「貞觀吟, 榆林關作」이라는 20구 7언 고시에서, 당 태종이 천하를 얻었으면 올바른 정사를 펼치는 데 주력했어야지, 쓸데없이 잘난 척하려 남의 나라에 쳐들어와 제 군사들만 고생시켰다며 힐난했다. 또 충신 魏徵이 죽은 뒤 그를 위한 비석을 세워주었다가, 뒷날 자신의 잘못을 직간한 상소문 초고를 보고 비석을 쓰러뜨리려 했다가, 요동 정벌에 실패하고 돌아와서는 다시 위징을 떠올리며 비석을 다시 세우라고 한 고사를 제시하여, 당태종의 어리석음을 비웃기도 했다. 문제가 되는 “주머니 속 물건을 꺼내는 듯 일렀건만, 화살에 눈 맛을 줄 어이해 알았으리”(謂是囊中一物耳, 那知玄花落白羽)는 바로 이 시의 15, 16 구절이다.

제목에서 이 시가 榆林關에서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榆林關은 榆關이라고

4) 이러한 모순을 가장 집요하게 추적하여 기록 이면의 진실을 캐러 한 사람은 단재 신채호이다. 당시 전쟁이 끝날 무렵의 정황에 대해서는 김용만, 『고구려의 발견』(바다출판사, 1998), 469~482쪽 참조

도 하는데, 명나라에 들어 山海關을 짓기 전 장성의 동쪽 끝 關門으로, 산해관에서 서쪽으로 가까운 곳에 있다. 이색은 두 차례에 걸쳐 북경에 다녀왔다. 1348년에 처음 북경에 가서 원나라 국자감에 입학하여 공부하다가 1351년 부친상으로 귀국하였다. 1354년에는 서장관으로 북경에 갔다가 會試에 급제하여 1355년 원나라 한림원의 한림에 제수되었으며, 1356년에 귀국하였다. 이 시는 정황상 1356년 귀로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유림관은 당태종의 東征路에 속하니, 목은이 여기서 옛일을 떠올리며 시를 지은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의문처럼, 목은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시를 지었을까 하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일단, 국내에 관련 전승 기록이 없고, 목은이 오랜 북경 생활을 한 것으로 미루어, 북경 일대에 유포되어 있던 전승이나 기록에서 취했던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원나라 때 북경에서 유행했던 雜劇 중에는 설인귀와 연개소문을 주요 인물로,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크게 유행하였기 때문이다.⁵⁾ 목은은 오랜 북경 생활로 그들의 언어와 풍속을 익히 알았으니, 시의 내용은 당시 북경에 유행했던 잡극이나 강사화본에서 채취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목은의 이 시는 당태종의 실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안시성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는 단서가 될만한 것이 없다. 목은은 鳳凰山城의 존재도 알지 못했고, 더구나 여기를 안시성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듯하다.⁶⁾

두 번째로 안시성을 거론한 사람은 정몽주(1337~1392)이다. 아래는 『포은집』(권 1)에 실려 있는 「安市城懷古」이다

황금 궁전에 옷자락 드리우고 앉아	黃金殿上坐垂衣
백전 영웅의 마음 지니지 못했노라	百戰雄心不自持
군사를 이끌고 오는 태종의 기세는	想見太宗親駕日
풍보가 수레에서 내릴 적 모습일러라	宛如憑婦下車時

5) 여기에 대해서는 박재연, 「薛仁貴征遼史略 小考」, 『중국학연구』 1(중국학연구회 1984) 참조 「薛仁貴征遼史略」은 박재연이 1991년 11월부터 1992년 9월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에 걸쳐 『중국소설연구회보』(한국중국소설학회)에 번역 연재하였다.

6) 한 예로 『牧隱藁 詩藁』 권3에는 「奉送傅子通應奉使東平, 賑濟客戶, 因過鳳凰山」이란 제목의 시가 실려 있는데, 여기서는 안시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시상은 달라도 주제는 목은의 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馮婦는 범을 때려잡을 정도로 용력이 과인하였으나 그 힘을 절제치 못하여 뜻있는 선비들의 웃음거리가 된 인물로 『맹자』에 나온다. 정몽주는 쓸데없이 힘자랑하려고 군사를 내어 우쭐대는 당태종을 다소 희화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렇다면 정몽주가 옛 사연을 회고했던 안시성은 과연 어디인가? 이는 당대의 사행로와 정몽주의 행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몽주는 1378년 이후 다섯 차례 對明 사행을 떠났다. 그중 1384년과 86년의 해로 사행을 제하고는, 1382년, 1383년, 1388년에 세 번씩이나 요동에서 입국이 허락되지 않아 되돌아왔다.⁷⁾ 당시 정몽주가 오간 사행로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1389년 권근의 『奉使錄』⁸⁾에 사행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정몽주의 행적을 추리할 수 있다. 여기 따르면 1380년대 명나라 사행은, 압록강을 건너 육로로 북경 근처 통주까지 갔다. 여기까지는 대략 조선초의 사행로와 일치한다. 통주에서 배를 타고 운하로 이동하여 남경으로 갔다. 일이 끝나면 登州에 와서 배를 탔는데, 여기서 바로 한반도로 오지 않았다. 지금의 大連市가 있는 요동만에 끝에 상륙하여 金州, 復州, 蓋州, 鞍山 등을 지나 요동(요양)을 거쳐 다시 동팔참 노선을 통해 압록강을 건너 귀국했다. 金州, 復州, 蓋州 등은 모두 고당 전쟁시 고구려의 방어시설이 있던 곳이다.

그런데 『포은집』을 보면 「宿蓋州」, 「蓋州雨中留待落後人」, 「復州館中井」, 「復州館夜雨」, 「蓋州館柳」, 「金州韋指揮宅畫鷹 走筆」, 「渤海古城」 등의 시들을 발견할 수 있다. ‘渤海古城’은 발해의 고성이라 아니라 발해 근처에 있는 고구려 성을 가리킨다. 정몽주도 권근과 비슷한 경로로 명나라에 다녀왔을 것이라고 상정한다면, 이 시들은 대개 1384년이나 1386년 南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지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중에서 「宿蓋州」는 “당 황제 친히 전쟁에 임했던 곳, 예로부터 개모성이라 전해져오네. 唐帝親臨戰, 相傳說蓋牟”로 시작한다. 蓋州는 현재 안시성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海城이나 大石橋市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이다. 또 정몽주는 「李勣戰處」라는 시도 남겼는데, 이적이 전투를 벌였던 곳 또한 蓋州이다.⁹⁾ 이런 여러 정황을 종합했을 때, 정몽주가 안시성 싸움을 회고했던 곳은 蓋州로 볼

7) 『포은집』 권말 부록 「연보」 참조

8) 『양촌집』 권6.

9) 『신당서』, 貞觀 19년조에, 李勣이 蓋牟城을 함락시키고 그 자리에 蓋州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수 있겠다.

요동반도를 이용한 해로 사행의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만족스러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명나라가 南京에서 北京으로 천도하는 1421년 전까지의 사행은 대개 이 노선을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연행사들이 안시성 전투를 자연스럽게 환기했을 것임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이를테면 1400년 李簾(1345~1405)은 개주를 지나며, 隋 煬帝가 하늘을 여기면서 군사를 일으켰다 패망했는데 영명한 군주라는 당 태종은 어찌하여 옛 전철을 그대로 되밟았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¹⁰⁾ 하지만 이후 육지 연행로가 확정되면서, 사신들이 요동반도에 들어갈 일이 없어졌고, 자연스럽게 안시성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다.¹¹⁾

III. 봉황산성의 고구려 도읍지설

1421년 명나라의 수도가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겨가며 사행로는 육로로 확정되어갔고, 마침 1419년 세종의 등위와 함께 조선에서는 대명 사신의 파견이 잦아지면서, 봉황산을 지나는 사행로의 이용은 더욱 활발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봉황산의 인상을 시문으로 남겼지만, 대개 눈에 보이는 외형만을 묘사했을 뿐 역사적 사연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간혹 이 일대를 三韓의 옛 강역으로 인지하고 그걸 특기한 경우는 있다. 1476년 서거정(1420~1488)은 봉황산을 두고, 아직 城堞이 남아 있다며 옛적 三韓이 서로 다투던 일과 遼·金이 차지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비감한 마음을 붙였다.¹²⁾ 1609년에는 유몽인이 지나가면서, 여기가 三韓의 옛 땅이었는데

10) 『雙梅堂先生篋藏集』 권2, 「次浩亭蓋州路上詩」, “煬帝驕邪妄自賢, 窮兵東極敢違天. 唐宗固是英明主, 覆轍如何不鑑前”

11) 최부는 1488년 『표해록』에서, 전문이라는 전제 아래 “三叉河에서 海州衛·西木城·綉岸城·鶯拿河屯·牢房·林子屯·獨塔里屯·林江河屯·蒲蘆葫屯을 거쳐 압록강에 이르는 연로에 옛 성터가 있었는데 황폐해 安市里가 되었고, 고구려가 당 나라 군사를 막았던 곳이라 전해진다”고 하였다 (권 3, 「見聞雜錄」). 여기서 말하는 安市里 또한 안시성과 관련이 깊은 곳일 텐데 현재 이 정보만으로는 어느 지점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12) 『四佳詩集 補遺』 권2, 「定州禹判官, 回自遼陽, 傳盛作, 謹依韻和奉, 鳳凰山」, “鳳凰山色蔚齊天, 鳳去山空事渺然. 雉堞有基棲孽虜, 鶴樓無地訪飛仙. 江山麗濟分爭日, 天地金遼割據年. 我亦開州曾弔古, 長林老樹鎖寒煙”

당나라의 전쟁 이후 중국의 영토가 된 사실을 환기하였다.¹³⁾ 하지만 그뿐 그 이상 인식의 진전은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눈에 확 띄이지는 않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인식의 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그건 봉황산성을 고구려의 도읍지로 보는 견해이다 1555년 白光弘(1522~1556)은 가사 「關西別曲」에서 “제향(帝鄉)이 어디시오 봉황성(鳳凰城) 갖잡도다”라고 하였으며, 유성룡(1542~1607)도 1570년의 사행을 추억하면서 봉황성을 ‘帝里’라고 하였다.¹⁴⁾ 이때 帝鄉이나 帝里란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문면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고구려 천제가 도읍했던 곳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지역에서 흥기한 왕조가 없는 데다, 고구려의 발상지인 桓因이나 集安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 외에, 결정적으로 아래 소개하는 두 작품이다.

1598년 명나라의 관리 丁應泰는 ‘조선이 일본을 끌어들이어 전쟁을 일으켜 요동을 빼앗아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으려 한다’는 요지의 상소문을 올렸다. 조선은 이를 해명하기 위해 李恒福(1556~1618)을 정사, 李廷龜(1564~1635)를 부사, 黃汝一(1556~1622)을 서장관으로 하는 사절단을 보냈다. 1598년 10월 21일 서울을 출발하여 5개월 여 계속된 이 사행의 여정을 이항복과 이정구는 모두 「戊戌朝天錄」에 담아 남겼다. 두 사람은 봉황산 아래를 지나며 시를 주고받았다. 먼저 시를 건넨 사람은 이정구였다.

먼 옛날 고구려의 태조께서는	伊昔句麗祖
바로 여기 이 땅에 도읍했었지	於茲作邑畿
땅의 기운 간세의 영웅을 낳고	地靈眞間世
천험 산세 요새를 구축하였네	天險設重衛

13) 『於于集 後集』 권1, 「鳳凰山」, “...維昔三韓界, 謠俗何鴻濛 唐兵剪勾麗 版籍中夏通...” 이밖에 유몽인은 봉황산성을 고당 전쟁시 당태종이 머물렀던 곳으로 알고 있었다(『어우집 후집』 권4, 「燕京沿路可遊者記, 送冬至副使尹防可晦, 參知」).

14) 『西涯集 別集』 권1, 「雨後前山杜鵑盛開, 忽憶庚午春, 以書狀赴燕, 三月還到鳳凰山下, 滿山皆此花, 遠人謂之滿山紅, 今已三十年矣. 覽物不能無感舊之意, 賦此云三月還到鳳凰山下」, “使節當時最少年, 還程正值艷陽天. 鳳凰山下花如錦, 鴨綠江頭柳似烟. 帝里和風飄客袂, 鄉關歸興屬吟鞭. 如今臥病南河曲, 白首看花只黯然”

봉황은 날아가서 산만 남았고	鳳去山空在
도성이 옮겨간 뒤 바위만 높네	城遷石自巍
흥하고 망한 자취 아스라하니	茫茫興廢跡
고금사에 눈물이 옷깃 적시네	今古一沾衣 ¹⁵⁾

시의 제목 아래 “산에 동명왕의 옛 성이 있다”(山有東明王舊城)란 주가 부기되어 있다. 이정구는 봉황산성을 실답하지는 않았지만, 성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며 나아가 그곳을 동명왕의 도읍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작품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잘 나타난다. 동명왕은 이곳의 地靈을 받고 태어난 보기 드문 영웅이다. 頸聯에서는 鳳과 城을 은유적으로 등치하였는데, 城은 동명왕 또는 고구려의 상징으로 보아 무방하다. 마지막 연에는, 국가는 오랜 전란을 겪어 피폐한데 설상가상으로 외교적 곤란까지 당하여 그걸 해명하러 가는 사신의 고단한 심사가 배어 있다. 여기서 다시 고구려와 조선의 처지가 동일시된다. 이걸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 역사적 조건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인식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항복은 이 시에 화답하면서, 원래의 시상 위에 설화적 사연을 하나를 첨입시켰다. 시의 3구에서 “북에 양을 매단 일 전하여 오니, 구유에 말을 묶어 벗어났다지”(懸羊傳俗諺 縛馬脫長圍)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민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이 성이 일찍이 적에게 포위되었다. 수비를 맡은 이는 지켜낼 수 없음을 알고 양을 북에 매달고 구유에 말을 묶어둔 뒤 밤을 틈타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양이 이리저리 움직일 때마다 네 말이 북을 두드리고 말이 구유를 건너차니 북소리가 났다. 적은 수비가 있는가 의심하여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사이 달아날 수 있었다”는 전설을 부기한 것이다.¹⁶⁾ 그리고 이정구와 마찬가지로 제목 아래에 “山有東明王舊城”란 주를 달아놓았다

두 사람의 견해는 매우 이례적이긴 해도, 앞의 백광홍과 유성룡의 예를 보아 돌발적인 것만은 아닌 듯하다. 과연 두 사람은 그러한 전설을 어디에서 채취하였고,

15) 『月沙集』 권2, 「鳳凰山」

16) 『白沙集 別集』 권5, 「次月沙沿途見寄」, “聞說天孫遠 因山有舊畿 懸羊傳俗諺 縛馬脫長圍 往事荒城廢 斜陽疊幟巍 秖今歌帝力 封壤入垂衣” 전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俗傳 是城昔被圍 守者知不可守, 懸羊於鼓, 縛馬於槽, 乘夜棄城遁 羊反側四蹄撞鼓, 馬擲蹶礙槽, 登登有聲, 敵疑有備 不敢入, 遂得脫”

또 그 전설은 어디에서 유래하였는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딱히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없어 막막하다. 다행인 것은 추론의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안시성은 丸都城이라고도 했다고 한다.¹⁷⁾ 이때 ‘安市’는 음차한 것으로 당시의 발음은 ‘알사’이며, ‘丸都’는 ‘알사’를 훈차 표기한 것이라고 한다. ‘城’은 고대 표기에서는 주로 ‘忽’로 되어있는데 이는 성을 뜻하는 말로 발음은 ‘골’ 또는 ‘구르’가 된다. 따라서 안시성이나 환도성의 당시 발음은 모두 ‘알시골’이며, 여기서 ‘알사’는 존자 또는 제왕을 뜻한다고 한다.¹⁸⁾

이 논지대로라면, 여기서 말하는 安市城과 高唐 전쟁 시기 등장하는 安市城은 전혀 별개의 것이 된다. 지리적으로도 전자는 압록강 중류 북변에 있고 후자는 요동만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으니 그 거리가 상당하다. 게다가 『증보문헌비고』에서는 安十忽과 丸都城과 鳳凰城이 모두 같은 공간을 나타내는 지명이라고 했다. 安十忽은 안시성의 다른 표기이다. 봉황성이 이 글에서 거론하는 봉황산성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안시성의 또 다른 후보가 등장하는 셈이다. 다음 절에서 보겠지만 조선 후기 봉황산성이 안시성으로 간주되게 된 데에는, 봉황을 뜻하는 고유어가 ‘안사’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보면 安十과 丸都和 鳳凰은 모두 ‘안사’로 불렸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미는 역시 모두 ‘존자’가 된다. 이때 안시성은 645년 고구려가 당군을 격퇴한 성이 아니라, 고구려 초기 동명왕 같은 존귀한 신이 건설한 도읍지가 된다.

이런 맥락이라면 봉황산성이 환도성이나 안시성으로 불렸으며, 여기서 고구려 시조 동명왕의 전설이 발생한 사실을 납득할 수 있게 된다. 예로부터 안시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분분하여 심지어는 압록강 동쪽이나 요양에도 있다고도 하였다.¹⁹⁾ 이 여러 설 중에서 丸都城은 거론된 바 없다. 이렇게 여러 설이 제기된 이유는 ‘안시성 전투’가 뒷날 관련 당사국 어디에서도 역사적으로 충분히 관리되지 않은 탓이겠지만, 이밖에도 안시성이 고유명사라기보다는 비중이 높은 존귀한 성을 가리키는 일반명사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17) 『삼국사기』 권37에서는 “安市城, 舊安十忽, 或云丸都城”이라 하였고 『삼국유사』 「왕력」에서는 “安市城, 卽丸都城”이라 하였다.

18) 최남희, 「고구려 지명 ‘安市城’의 재고찰」, 『국어교육연구』, 36(국어교육학회, 2004), 26쪽.

19) 안시성의 위치에 대한 여러 학설에 대해서는 김일경, 「安市城은 어디에 있는가」, 『건축역사연구』 38(한국건축역사학회, 2004), 97~99쪽 참조.

두 안시성 사이의 괴리는 물론, 봉황산성을 고구려의 도읍지로 보았던 일군의 견해를 해명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는 현재로서 추측 가능한 방법의 한 가지일 뿐이다. 새로운 관련 자료나 논거를 기다린다

IV. 봉황산성의 안시성설

앞장에서 보았듯, 봉황산을 지나며 이 일대를 고구려의 옛 강역으로 보거나 고구려의 도읍지로 알고 있는 경우는 간간히 있어 왔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일 뿐, 거기에 일정한 역사적 흐름이 작용했던 것은 아니다. 고려 말 이제현이나 이곡 등이 육로를 이용하여 북경을 오갈 때부터 16세기에 이르기까지 봉황산은 경관이 뛰어난 산이었을 뿐, 특별한 역사적 사연을 지닌 공간이 아니었다. 그런데 17세기에 접어들면서 봉황산성을 안시성으로 인지하는 태도가 뚜렷한 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흐름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고, 나아가 그 역사적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새 흐름의 시원이 되는 사람은 趙緯韓(1567~1649)이다. 1609년 그는 봉황산을 지나며 “봉황성을 혹은 안시성이라 하고 혹은 거주성이라 하는데 안시성은 양만춘이 지켰던 곳이고, 거주성은 연개소문이 웅거했던 곳이다”(鳳凰城, 或曰安市城, 或曰菴州城, 安市則楊萬春之所守, 菴州則蓋蘇文所據也)라는 긴 제목의 시를 남겼다. 안시성은 물론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이채롭다. 양면이 가파른 산으로 둘러싸인 천험의 지형을 섬세하게 묘사한 것으로 미루어, 작자는 성을 둘러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위한은 성을 둘러본 인상으로 막연하게 이곳이 안시성이 아닌가 의심했는데, 여기 주민들은 강성했던 연개소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조위한은 봉황산성을 역사지리적으로 규명하는 것에는 자신이 없었으며, 시상 또한 그러한 태도로 마무리하고 말았다.²⁰⁾

이렇게 갑자기 역사상에 안시성과 양만춘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尹根壽(1537~1616)는 李時發(1569~1626) 과 임진왜란 때

20) 『玄谷集』 권5, “幾疊青山古戰場, 周遭十里擁金湯. 連牆冠岫干星漢, 列堞嬰巒束劍鉞. 行客謾疑安市蹟, 居民猶說蓋蘇強. 悠悠往事憑誰問, 一抹螺髯帶夕陽”

참전했던 명나라 장수 吳宗道가 각각 『唐書演義』와 『太宗東征記』에서 안시성의 성주가 梁萬春임을 보았다는 기록을 남겼다.²¹⁾ 金時瓚(1581~1643)이 1612년 함경도 종성에서 지은 『涪溪記聞』에도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여기서 말하는 『唐書演義』는 1553년 명나라 사람 熊鍾谷이 지은 소설 『唐書志傳通俗演義』를 가리키는 데,²²⁾ 『太宗東征記』는 같은 책의 이명인지 별개의 책인지 분명치 않지만 전자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 책은 임진왜란에 명군이 참전하면서 조선에 유입되었고, 조선의 지식인들은 비로소 양만춘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조위한 또한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 뒤로 연행사들은 봉황산성을 오래 안시성으로 보기 시작했다. 1636년 김육(1580~1658)은, 봉황산성을 안시성이라고도 한다면, 동방에도 그런 뛰어난 인물이 있었는데 그의 흔적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른다면 발길을 멈추고 비감에 사로잡혔다.²³⁾ 뛰어난 인재를 바라는 마음은, 병자호란 발발 직전이라는 시대 상황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 金世濂(1593~1646)은 1643년 평안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잠시 귀국했다가 심양으로 돌아가던 소현세자를 배행하여 책문까지 이르렀던 적이 있다. 그는 소현세자와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며 책문 너머로 보이는 봉황산을 바라보았고, 옛날 당나라의 백만 군사를 물리쳤다는 안시성 싸움을 떠올렸다.²⁴⁾ 이 시의 시상에도 청나라에 종속되어 있는 당시의 굴욕적인 상황이 스며있다. 排淸論者였던 黃辰(1604~1656)도 1650년 책문에서 봉황산을 읊었다 여기서 그는 봉황산 아래 무너진 성터가 안시성으로 전해져오는 사실을 전제하고, 청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책문에서 통관 점검을 받는 처지와 옛날 안시성주가 지녔던 영웅호걸의 풍모를 대비시켰다.²⁵⁾

21) 『月汀文集 別集』 권4, 「漫錄」, “壬辰亂後, 天朝將官出來我國者有吳宗道謂余曰, 安市城主姓名梁萬春, 見太宗東征記云 頃見李監司時發言曾見唐書衍義 則安市城主果是梁萬春”

22) 古本小說叢刊 제4집 1, 2책, 中國 中華書局, 1989.

23) 『잠곡선생유고』 권1, 「봉황산」, “茲山信奇秀, 愛汝名更佳. 人言往古時, 鳳凰鳴啾啾. 今爲腥臊鄉, 名實何其乖. 群峯如東立, 突兀衝天街. 中有石築基, 轟轟橫層崖. 云是安市城, 七德雄心差. 吾東亦有人, 何處英魂埋. 踟躕念往事, 激烈傷余懷.”

24) 『東溟先生文集』 권5, 「柵門外望安市城」, “此去回轅定幾時, 柵門西畔淚交垂. 可憐安市千尋壁, 曾却唐家百萬師.”

25) 『漫浪集』 권5, 「鳳凰城」, “鳳凰山麓古荒城, 安市猶傳舊邑名. 城壓上流通鴨水, 山圍曠野控燕京. 版圖久變憑誰問, 寨柵新開點客行. 却想當年拜天子, 勿云東國少豪英”

이러한 흐름은 17세기 내내 지속되었다. 姜栢年(1603~1681)의 「安市城途中偶吟」(1660), 申晷(1628~1687)의 「安市城」(16??), 南龍翼(1628~1692)의 「塞上曲, 安市城」(1666), 金錫胄(1634~1684)의 「鳳凰山」4수(1683) 4수, 任相元(1638~1697)의 「安市城」(1687), 李世白(1635~1703)의 「安市城 次副使韻」 등은 모두 봉황산을 지나며 안시성 싸움을 떠올린 작품들이다.²⁶⁾ 崔錫鼎(1645~1715)이 1685년과 1697년에 지은 「鳳凰城」도 같은 부류이다. 이들 작품은 대개 시상의 전개가 유사하다 [봉황산 아래 옛 성터가 있는데 그게 안시성이라더라]로 시작하여, 옛 영웅의 풍모를 그리는 것으로 이어진다. 모든 작품은 안시성주의 영웅적인 행적을 그리워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초점을 잃어버린 고토에 맞추고 있는가,²⁷⁾ 당 태종이나 『당서』의 기록인 ‘城上拜’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²⁸⁾ 이는 병자호란 이후 고양된 주체적 자의식과 함께, 강화된 중국 중심의 의리론을 교묘하게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18세기에 들어 봉황산성을 안시성으로 보는 견해는 더 널리 퍼진다. 柳得恭(1748~1807)은 1778년 봉황산을 지나며 아래 시를 지었다.

주필산 자락에다 6군을 주둔하고	駐蹕山前老六師
고구려를 하구려라 잘못 알보았네	當時錯料下句麗
지금도 안시성은 그대로 남아있어	至今安市城猶在
양만춘 이름 석자 아이처럼 부르누나	梁萬春堪呼可兒 ²⁹⁾

26) 각각 『雪峰遺稿』 권14; 『汾涯遺稿』 권5; 『壺谷集』 권12; 『息菴先生遺稿』 권7; 『雲沙集』 권3; 『恬軒集』 권15에 실려 있다. 아래 최석정의 작품은 『명곡집』 권 3과 5에 들어있다.

27) 김석주의 「鳳凰山」 중 네 번째인 “誰割東地五百, 今入中原幾年. 試觀山河物色, 尙有檀箕風煙. - 東地五百語出戰國策.”나, 최석정의 「봉황성」 6수(권 5) 중 첫 번째인 “遼左窮邊一片城 唐宗於此昔觀兵. 寒霜玉帳三軍老, 白羽玄花四海驚. 魯削已悲疆土蹙 秦輸重愧使車行. 可憐當日楊都尉, 青史中間沒姓名”이 여기에 해당된다

28) 위 각주에서 예로 든 작품 외에는 대부분 ‘城上拜’를 중요한 모티프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고구려의 주체적인 對唐 抗戰을 높이 평가하면서, 천자국에 대한 의리와 명분도 동시에 살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한편으로는 민족적 자의식을 높여 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중심의 의리명분론을 강화시켰던 다분히 자기모순적인 면모는 조선 후기 사대부들의 특징 중 하나이다.

29) 『冷齋集』 권3, 「安市城」

한나라 때 王莽은 고구려란 이름이 거슬린다고 멋대로 下句麗라 바꿔 불렀다. 2구는 고구려를 우습게보아 여러 신하들의 제지도 듣지 않고 원정을 감행했던 당 태종을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안시성에서 전선이 고착되어 참혹한 형상으로 군사를 돌려야 했고, 안시성은 그날의 전황을 증명하듯 말없이 남아있다 그리고 안시성에서 당군을 막아냈던 양만춘은 너무도 유명해져서, 누구나 다 아이들 이름 부르듯 하고 있다. 1720년 李宜顯(1669~1746)은 중국 사람들이 당 태종이 눈에 화살을 맞은 일을 꺼려 역사에 기록하지 않았다 하고, 줄어든 영토를 생각하며 옛 영웅의 풍모를 그리워했다.³⁰⁾ 1782년 홍량호(1724~1802)는 봉황산성을 찾아 옛 안시성 싸움을 떠올리며 고려 사람으로서의 역사적 정체성을 뜨겁게 확인하였다.³¹⁾ 18세기에 들어 봉황산 아래에는 옛 고구려 성곽이 있고 이곳이 양만춘 장군이 당군을 물리친 안시성이라는 것은 연행사들의 상식이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청나라 사람에게도 침윤되었다. 1770년대 봉황성의 관리로 부임한 博明希哲은 이 일대의 고적을 정리하여 『鳳城鎖錄』이란 작은 책자를 엮었다. 봉황산성을 둘러본 그는 그 규모 및 제도와 함께 이곳을 조선 사람들은 안시성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소개하였다. 나아가 『신당서』의 기록을 고찰한 뒤 당시의 정세와 꼭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으며, 안시성이 蓋州城 북쪽 70리 지점에 있다는 『명일통지』의 기록을 부정하였다. 또 당시 안시성주의 이름을 조선 사람들은 楊萬春이라고 한다는 덧붙여, 역사의 결락을 메우려는 뜻을 보였다.³²⁾ 언표에 그대로 드러나듯이, 안시성과 양만춘 관련 부분은 모두 조선 사람들에게서 전해들은 것이다. 이는 청나라 지식인 관리가 역수입할 정도로, 조선 사람들 사이에 봉황산성의 안시성설이 폭넓게 퍼져있었음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17세기 이후 봉황산성이 안시성이라는 견해가 대두되어 널리 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으로선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은 『唐書志傳通俗演義』의 전래이다. 조선에서 이 책이 새로 간행되거나 번안될 정도로 널리 읽힌 것은 아니다.³³⁾ 하지만 이 책은 안시성 전투를 포함한 高唐 전쟁의

30) 『陶谷集』 권2, 「安市城」, “舊迹依稀拜帝年, 顏陣長臥客程邊 休言萬乘揚威壯, 尚有孤軍抗節堅 白羽已知嫌諱甚, 青編終慚姓名傳 傷心魯削今如許, 緬挹英風涕自漣”

31) 『耳溪集』 권30, 「安市城記」

32) 『遼海叢書』(遼海書社, 1987) 제2책, 521쪽. 이 책을 지은 博明希哲은 서화와 학문 및 騎射 등 여러 방면에 뛰어난 능력을 지녔던 만주인 귀족이다.

상황이—인물, 지리, 무기 등—풍부하게 기술되어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안시성 주 梁萬春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강렬한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⁴⁾ 두 번째는 역사 상황이다. 두 차례의 전란은 자연스럽게 민족적·역사적 자의식을 강화시켰다. 특히 병자호란 이후 정신적 상처가 컸던 지식인들은 이를 치유할 만한 역사 인물에 쉽게 이끌렸고, 18세기 새로운 역사의식이 성장하면서 안시성은 인기 있는 화두가 되었던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본디 봉황산성에 전승되어 오던 전설과 만나면서 폭발적인 상승작용을 일으켰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V. 봉황산성의 안시성설에 대한 반론

17세기 이후 봉황산성이 옛 안시성이라는 속설은 통설처럼 굳어져갔다. 실제 대부분의 연행사들은 충분한 역사지리적 논거를 갖추지 못했고, 양만춘 관련 전승에 대해서는 역사기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적인 태도가 많았다.³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황산성이 옛 안시성이라는 통설에 쉽게 이끌렸으니, 그건 다분히 심정적인 태도였다. 심정이란 민족적 자의식의 발로일 수도 있겠고, 여행자의

33) 『薛仁貴征遼史略』은 조선에서 「설인귀전」 등으로 번안되어 널리 읽혔음은 밝혀졌는데, 아직까지 『唐書志傳通俗演義』의 수용 사례는 연구된 바 없다. 「설인귀전」에 대해서는 서대석, 「李朝翻案小說放: 薛仁貴傳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52(국어국문학회 1971), 53~55쪽, 성현경 「女傑小說과 薛仁貴傳: 그 저작년대와 수입년대·수용과 변용」, 『국어국문학』 62·63(국어국문학회 1973), 171~176쪽, 이윤석, 「설인귀전의 원천에 대하여」, 『연민학지』 9(연민학회 2001) 210, 211쪽 등을 참조

34) 책의 마지막 권8의 대부분이 고당 전쟁의 내용이다 『설인귀정요사략』이 설인귀 중심의 영웅담인데 비해, 이 책은 역사서의 기술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술하는 역사연의의 성격이 강하다. 안시성 싸움에 대한 중국의 문헌은 두 책 말고도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거정은 唐代 柳公權(778~865)의 소설을 거론했고 『筆苑雜記』 권2), 이익은 明代 何孟春(1474~1536)의 『餘冬序錄』에서 양만춘 관련 기사를 보았다고 했다(『성호사설』 권7, 「經史門 安市城主」). 두 책의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해 속단할 수 없지만, 대개 웅종곡의 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5) 이덕무의 당 태종이 애꾸가 된 사연에 대한 기사(『국역청장관전서』 제7책, 48쪽(「칭비록」 권 1)), 1798년 徐有聞이 제기한 견해(『국역무오연행록』 44, 45쪽 국역연행록선집 제 책) 등이 대표적 예이다.

낭만적인 정서, 그리고 먼 옛날 역사에 대한 감상적인 태도 같은 것도 작용했으리라 본다. 이는 문학적인 감염에 가까운 것이었으니, 연행사들이 遼陽의 太子河를 지나며 荊軻의 고사를 떠올린 것³⁶과 유사하다.

그런 가운데 비판적 반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17세기 중엽 이후 조선에서는 역사지리학이 두드러진 발전을 보였고, 일부 지식인들은 그 성과의 토대 위에서 안시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였다. 이러한 흐름의 물줄기를 연 사람은 南九萬(1629~1711)이다. 그는 함경도관찰사로 있던 1674년 「咸鏡十景圖」와 「北關十景圖」을 잇달아 제작하고, 지도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³⁷ 1684년에 연경에 다녀오면서 「봉황산」이란 시를 남겼는데, 여기에 붙인 서문의 내용이 주목을 요한다. 이 글에서 남구만은 먼저 “바위 봉우리가 동서로 가운데 사이를 두고 벌려 서있어 마치 봉황이 양 날개를 펼친 듯하다. 옛날 석성이 있어 두 봉우리를 안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안에 10만 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성의 지세와 지형을 묘사했는데 봉황산성의 그것과 꼭 들어맞는다. 이어서 이를 옛 안시성이라고 알고 있는 역관의 말을 소개하였다.

그 다음에 논거로 든 것은 『大明一統志』(1461)이다. 이 책에서는 ① 金州衛 동쪽과 遼東都司城 동쪽 360리 지점에 각각 봉황산이 있는데 모두 당태종이 머물렀던 곳이고, ② 당태종이 함락시키지 못한 安市廢城은 蓋州衛 동북쪽 70리 지점에 있으며, ③ 압록강이 안시성 아래를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남구만은, 봉황산성은 ① 요동도사성 동쪽 360리 지점에 있는 것은 맞지만 ② 개주위 동북쪽 70리 지점에 있지 않으며, ③ 압록강으로부터도 거의 사흘 거리에 있다는 점을 들어 압록강설을 부인하였다. 금주위 동쪽에 있는 봉황산에 당태종이 머문 것은 사실이지만, 책문 근처 봉황산은 이름이 같은 까닭에 『대명일통지』의 저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았다. 이어서 이렇게 안시성의 위치가 문헌에 분명히 전하는데도, 엉뚱한 속설이 전해지는 것을 한심하게 생각했다. 나아가 義州 사람들의 전언을 근거로,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 서쪽 기슭에 있다고 하는

36) 여기에 대해서는 이승수, 「對淸 使行과 荊軻의 문학적 형상」, 『한국한문학연구』 36(한국한문학회, 2005), 317~327쪽 참조.

37) 남구만의 역사지리 인식에 대해서는 박인호, 「남구만과 이세구의 역사지리 연구」, 『역사학보』, 138(역사학회, 1993), 34~48쪽, 이승수, 「조선후기 燕行 체험과 故土 인식」, 『동방학지』, 129(연세대 국학연구원, 2003), 205~207쪽 참조.

高牟城이 옛 안시성이 아닌가 추측하였다.³⁸⁾

이후 『대명일통지』는 안시성의 위치를 비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로 이용되었다. 1712년 자제군관으로 연행을 떠난 金昌業(1658~1721)도 이 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가는 길에는 직접 들르지 못하고 문헌에 의지하여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역시 안시성이 개주성 동북쪽 70리 지점에 있다는 『대명일통지』의 기사에 의거하여 안시성설을 부정하였고, 차라리 동명왕의 도읍지설을 이치상 근사하게 보았다.³⁹⁾ 이듬해 귀로에 일행과 떨어져 角山, 醫巫闔山, 千山을 두루 유람한 김창업은 마지막으로 봉황산성을 찾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봉황산이 요동도사성 동쪽 360리 지점에 있고 당태종이 머물렀던 곳이라고 하는 『대명일통지』의 내용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건 千山 祖越寺에서 이곳에 연개소문의 사당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⁴⁰⁾ 또 여기 와서는 북문 밖 절에 연개소문과 설인귀의 塑像이 있음을 재차 확인했기 때문일 것이다.⁴¹⁾

1780년 박지원(1737~1805)도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그는 봉황산성의 면모는 직접 보지 못했고⁴²⁾ 옛 강역과 역사서술의 문제로 일대 기염을 통하는 가운데 역사적인 추론만 제기하였다. 고구려의 옛 말에 큰 새를 ‘안시’, 蛇를 ‘배암’이라 했으니, 隋·唐 때에 고구려 말을 좇아 봉황성을 안시성으로, 蛇城은 白巖城으로 고쳐 불렀다는 속설도 그럴 듯하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재미삼아 소개한 것이고 봉황산성의 안시성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대신 평양과 안시성 사이의 거리가 500리이고, 봉황성을 王儉城 또는 平壤이라고도 한다는 『唐書』이 기록과, 옛날 안시성은 蓋平縣 동북쪽 70리에 있다는 기록을 토대로, 안시성은 蓋州의 동북쪽에 있고 봉황산성은 옛날 고구려의 도읍지가 아닐까 하는 가설을 내세웠다.

38) 이상은 『樂泉集』 권2, 「鳳凰山」의 서문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39) 『연행일기』(국역연행록선집 제4책), 68쪽.

40) 위의 책, 546쪽

41) 위의 책, 570쪽. 연개소문과 설인귀의 소상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연행로 곳곳, 이를테면 봉황산은 물론 여기서 가까운 薛禮(옛날엔 薛劉), 磨天嶺, 亮甲山, 鷄鳴寺, 望寶臺 등지에 설인귀 전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봉황산성의 안시성설은 이러한 민간 전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논거를 더 보강하여 별도로 논의하고자 한다.

42) 박지원은 봉황산성을 찾지 않았고, 마침 보수 공사중인 鳳凰城(지금의 봉성시 외곽을 두른 성, 명대의 開州城을 말한다)을 보고 논의를 펼친 것이다.

이는 평양과 안시성 사이의 거리가 500리라는 기록에 착안한 것이고, 또 고대 고구려의 도읍 평양이나 패수 등의 위치는 대부분 압록강 북쪽에서 찾아야 한다는 역사지리적 통찰에 근거를 둔 것이다.⁴³⁾ 어쨌거나 김창업과 마찬가지로 박지원도 봉황산성을 고구려 초기의 도읍지로 제시한 것은, 3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미루어 보았을 때 흥미로운 가설이 아닐 수 없다.

安鼎福(1712~1791)은 史家답게 현장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여러 문헌을 동원하여 안시성론을 펼쳤다. 그는 『대명일통지』 외에 班固가 “大遼水가 塞外로 나가 남쪽으로 安市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한서』 「지리지」에 붙인 주석을 논거로 동원하였다. 大遼水는 遼河(또는 巨流河)인데 안정복은 이 말을 근거로 안시성이 있는 곳을 海城으로 추정하였다.⁴⁴⁾ 안시성이 곧 환도성이라고 한 『삼국사기』의 기록에 대해서는 별 논거의 제시 없이 틀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봉황산성을 안시성으로 보는 통설에 대해서는, 우리말에 봉황을 아시조(阿是鳥)라 했던 까닭에 생긴 오류라고 보았다. 오류의 근거로 전쟁 당시 안시성을 버리고 오골성을 치면 안 된다고 한 李勣의 건의의 지리적 근거와,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철수하여 사흘 만에 지금의 요양시에 도착한 사실을 들었다. 개주와 해성 일대에서 요양시까지의 170리이고, 봉황산과 요양시 사이의 거리는 300리가 넘으니, 천자의 행차로서 사흘 만에 300리 넘는 길을 갈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⁴⁵⁾

18세기에 들어서 옛 안시성은 蓋州 일대에 있다는 설이 다시 유행해졌다. 이러한 주장은 수적으로는 미약해도 그 논거가 분명하여 설득력이 강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명나라가 북경으로 천도한 뒤에 사행로가 확정되어 사신들의 사사로운 일탈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고구려의 역사 현장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증원의 주인이 淸으로 바뀐 뒤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연행사들, 또는 조선의 학자들은 문헌기록과 지도만을 가지고 안시성론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蓋州說이 힘을 얻어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정적인 봉황산성의 안시성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남구

43) 『국역열하일기』, 「도강록」, 55~60쪽.

44) 해성의 英雄子山城은 1941년 중국인 학자 김육불이 『동북통사』에서 옛 안시성이라고 주장한 이래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져온 곳이다. 김일경, 앞의 논문, 98~99쪽.

45) 안정복, 『동사강목』 부록 하, 「安市城考」. 안정복의 견해는 바로 뒷시대 정약용이 계승한다. 정약용의 견해는 『여유당전서』 제6집 지리지, 「疆域考, 丸都考」에 보인다.

만도 서문에서는 봉황산성이 안시성일 리 없다고 했지만, 시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소설로 설화로 전승되어 온 안시성 싸움을 떠올렸으니, 그건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정서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봉황성 밖에 봉황산이 있는데	鳳凰城外鳳凰山
가파른 산 사이에 옛 성첩 남아있네	殘堞依稀疊巘間
당태종 머물렀다 사람들 말을 하고	漫說貞觀曾駐蹕
안시성이 여기라고 전하여 오는구나	仍傳安市舊防關
눈동자 어이하여 여기에서 떨어졌고	玄花豈向此中落
어가는 또 어디서 말머리를 돌렸던가	黃屋定從何處還
지난 자취 아스라해 물어볼 데 없는데	往迹微茫無可問
하늘엔 그믐달만 활처럼 걸려있네	碧天唯有月如彎

아마도 이들에게 더 소중했던 것은 안시성의 지리적 위치보다는, 전승되어 오는 안시성 싸움의 과정과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옛 안시성 여부와는 별도로, 봉황산을 지나는 여행자들이 부단히 안시성 싸움을 떠올린 이유이다.

병자호란의 체험과 명칭의 교체라는 사실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위기감을 주는 동시에 자아의 각성을 요구했다. 이는 정파를 초월한 보편적인 사안이었다. 정파와 이념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은 달라지지만, 고대사의 기원이나 지리적 영토 등의 매개를 통해 민족 공동체의 자의식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은 공통의 방향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712년 朝淸간 정계비가 설립되었고 이는 영토 및 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남구만, 박지원, 안정복 같은 지식인들은 지지와 지도와 역사기록을 앞에 놓고 상호 조명하면서 안시성의 위치를 비정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은 봉황산성이 안시성이라는 통설을 반박하고, 안시성의 위치는 蓋州 일대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와 한계로 이들의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또한 봉황산이 옛 안시성이라는 속설을 부정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이끌렸으며, 이들의 그 정서가 오늘날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이런데서 역사에 대한 문학적 접근의 당위성이 마련된다.

VI. 맺음말

745년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은 안시성에서 전선이 고착되었다. 추위와 군량 조달 문제에 직면한 당태종은 결국 9월 군사를 돌이켜 물러가고 말았다. 중국의 역사서는 당태종의 퇴군 사실을 최대한 의연하게 묘사하였으나, 기술 상 여러 가지 자기모순을 감출 수는 없었다. 후대의 사기들은 이 실상과 기록 사이의 괴리를 집요하게 추적했다. 한편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은 공식적인 발표·기록과는 배치되는 수많은 민간의 이야기들을 발생시켰다. 이 기록의 모순과 민간의 전승이 만나 일군의 문학작품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문학작품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전쟁에 참여했던 薛仁貴의 영웅담이고,⁴⁶⁾ 다른 하나는 歷史演義이다. 두 유형에서 공통적인 주요 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당태종이 겪는 위기’인데, 그 배경이 전자에서는 봉황산⁴⁷⁾ 후자에서는 안시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舊唐書』 등에 나오는 역사기록의 자기모순과 연결되어 논란이 되곤 하였다.

이러한 문학 작품들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사회에 들어오면서, 그 영향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파급되었다. 두 차례의 전란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조선의 지식인에게, 중국 문학의 안시성 싸움 관련 기사는 쉽게 침윤되었다. 특히 연행사들은 봉황산성을 발견하면서 자연스럽게 옛 역사를 환기하였다. 이들은 안시성주 양만춘의 쾌거를 떠올리고, 그때와 다른 당시의 현실을 비감해하곤 하였다. 여기에는 ① 당태종이 봉황산성에서 위기에 빠졌다는 설인귀 영웅담의 내용, ② 안시성주 양만춘이 당군의 파상 공격을 격퇴했다는 당서연의의 내용, ③ 당태종이 안시성을 공략하지 못하고 군사를 돌이켰다는 역사기록의 내용, ④ 고구려의 옛말에 봉황을 ‘안시’ 또는 ‘아시’라고 했다는 전승, ⑤ 문화적으로 야만시하던 淸나라

46) 중국에서 薛仁貴 고사는 원대 이후 각종 서사와 극 장르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전승되어온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대부분 연개소문과의 대결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 설인귀 고사의 내력과 전승 양상에 대해서는 申敬燮, 「俗文學中薛仁貴, 蓋蘇文故事的由來及演變」, 『亞西亞文化研究』, 2(경원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453~478쪽 참조.

47) 허구 서사의 내용을 모두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고려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설인귀정요사략』에 나오는 이 봉황산은 『대명일통지』에 나오는 바 개주성 동쪽에 있다는 봉황성일 가능성이 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에 눌러있는 역사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17세기 이후 연행사들에게 봉황산성은 양만춘이 승전했던 안시성의 이미지로 새롭게 다가왔다. 이 이미지는 유득공이 말했던 바, 누구나 양만춘을 아이 이름처럼 부른 것처럼 조선사회에 널리 퍼급되었다. 하지만 역사적인 고증의 차원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일군의 사가들은 여러 문헌 증거를 토대로 옛 안시성의 위치를 蓋州 일대로 비정했고, 양만춘의 고사에 대해서는 그 개연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실로 받아들이기에 주저했다. 이러한 사정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심정적으로는 양만춘의 고사를 받아들이고, 또 감성적인 담론의 장에서는 안시성의 승전이 거론되지만, 정작 안시성에 관한 독립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역사 기록에서 탈락한 사연이,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본고는 봉황산성을 중심에 놓고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안시성 인식을 살펴본 것이다. 논의를 위해 14세기 중엽에서 18세기 말에 이르는 시기 연행사들의 문학 작품, 역시 같은 시기에 발생하고 유행했던 중국의 허구 서사 작품들을 고찰하였고, 현지의 민간 전승도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안시성 싸움의 고사가 발생하고, 17세기 이후 조선사회에 널리 퍼지게 된 경위를 대략 간추릴 수 있었다. 역사에서 발생 당시의 사건을 정확하게 재구하는 것만큼이나, 그 사건이 후대에 어떻게 수용 기억, 관리, 재생산되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는 일면 수용, 기억, 관리, 재생산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기존의 관행처럼 역사와 문학 문헌 기록과 구비전승 사이의 높은 담장은 조금 더 낮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옛 안시성의 위치는 『대명일통지』의 기록, 정몽주와 최부의 증언, 남구만과 안정복 등의 주장, 그리고 현대 역사학자들의 논증처럼 蓋州 일대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역사 연구가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봉황산과 요동반도 일대에 먼 옛날부터 전해져오는 설화들, 중국의 허구 서사 및 극 작품들 그리고 조선의 수많은 문학작품들과 오늘날 우리들의 태도는 모두 안시성 싸움의 역사적 외연에 해당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봉황산 일대에 전승되는 전설들이 우리 관점에서 채록된 바 없고, 옛 안시성으로 비정되고 있는 영성자산성 등은 한국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역사적 실체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밟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14세기 중엽에서 18세기 말까지로 논의의 범주를 한정했기 때문에 그 결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논의가 더 현재적이고 또 실효성이 있으려면, 19세기 및 국권상실기의 안시성 인식, 그리고 분단 이후 남북에서 전개된 안시성론, 그리고 학계에서 제기된 안시성론과 재야에서 안시성이 이야기되는 방식 등이 두루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이 논의가 안시성 논의의 진전에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양촌집』, 『식암유고』, 『동명선생문집』, 『잠곡선생유고』, 『연행일기』(국역연행록선집 제4책), 『藥泉集』, 『호곡집』, 『국역 열하일기』, 『사가집』, 『국역 무오연행록』(국역연행록선집 제 책), 『영재집』, 『어우집』, 『서애집』, 『월정집』, 『국역 청장관전서』, 『목은집』, 『도곡집』, 『국역 성호사설』, 『월사집』, 『雙梅堂先生篋藏集』, 『백사집』, 『국역 동사강목』, 『포은집』, 『여유당전서』, 『民堡議·民堡輯說』, 『현곡집』, 『국역 표해록』, 『명곡집』, 『耳溪集』, 『만량집』
- 김용만, 『고구려의 발견』. 서울: 바다출판사, 1998.
- 김일경, 「安市城은 어디에 있는가?」. 『건축역사연구』 38, 한국건축역사학회, 2004, 97~105 쪽
- 박인호, 「남구만과 이세구의 역사지리 연구」. 『역사학보』 138, 역사학회, 1993, 33~72 쪽.
- 박재연, 「薛仁貴征遼史略 小考」. 『중국학연구』 1, 중국학연구회, 1984, 175~212 쪽.
- 박재연(역), 「薛仁貴征遼史略」. 『중국소설연구회보』. 한국중국소설학회, 1991. 11~1992. 9.
- 申敬燮, 「俗文學中薛仁貴, 盖蘇文故事的由來及演變」. 『亞西亞文化研究』 2, 경원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453~479 쪽
- 王綿厚, 『高句麗古城研究』. 北京 文物出版社, 2002.
- 熊鍾谷, 『唐書志傳通俗演義』. 古本小說叢刊 제4집 12 책, 中國 中華書局, 1989.
- 이승수, 「조선후기 燕行 체험과 故土 인식」. 『동방학지』 129,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3, 199~243 쪽
- 이승수, 「對淸 使行과 荊軻의 문학적 형상」. 『한국한문학연구』 36, 한국한문학회 2005, 303~332 쪽
- 서대석, 「李朝翻案小說 薛仁貴傳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52, 국어국문학회 1971, 49~74 쪽
- 성현경, 「女傑小說과 薛仁貴傳: 그 저작년대와 수입년대·수용과 변용」. 『국어국문학』 62·63, 국어국문학회, 1973, 165~181 쪽

이윤석, 「설인귀전의 원천에 대하여」, 『연민학지』 9, 연민학회, 2001, 195~223쪽.

최남희, 「고구려 지명 ‘安市城’의 재고찰」, 『국어교육연구』 36, 국어교육학회, 2004, 261~288 쪽

국문 요약

燕行路 상에 있는 봉황산의 동쪽 자락에는 아직까지 고구려의 옛 성이 남아있다. 이 성은 가파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성벽의 둘레는 7,525m에 달한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고구려의 烏骨城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그런데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성이 745년 양만춘 장군이 唐의 대군을 물리친 安市城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고, 이 때문에 조선 사신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안시성설은 18세기 이후 사회의 통설이 되었다. 물론 역사 지리학의 토대 위에서 이 안시성설을 부정하는 반론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렇게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의 공간에 깊은 역사적 유서가 깃들게 된 현상을 우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14세기 중엽에서 18세기 말에 이르는 시기 여러 가지 역사 조건을 고려한 결과, 이러한 현상에는 ① 唐太宗이 봉황산성에서 위기에 빠졌다는 薛仁貴 영웅담의 내용, ② 안시성주 양만춘이 唐軍의 과장 공격을 격퇴했다는 『唐書演義』의 내용, ③ 당태종이 안시성을 공략하지 못하고 군사를 돌이켰다는 역사기록의 내용, ④ 고구려의 옛말에 봉황을 ‘안시’ 또는 ‘아사’라고 했다는 전승 ⑤ 문화적으로 야만시하던 淸나라에 눌러있는 역사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을 규명하였다. 이 글의 논의는 안시성의 위치를 비정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복잡한 역사 환경 속에서 역사 인식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양상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 투고일 : 2006. 4. 5.

● 심사완료일 : 2006. 5. 29.

● 주제어 (keyword) : 鳳凰山(Mt. Fenghuang), 鳳凰山城(Fenghuang Fortress),
 安市城(Ansi Fortress), 양만춘 (General Yang, Man Chun),
 고구려-당나라 전쟁 (the War of Goguryeo and Tang Dynasty),
 燕行路(the road of diplomatic travels to Beijing),
 薛仁貴(Seoringui)